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한국사〉 기출문제 총평

- 아모리이그잼 학원 이명호 교수 -

■ 총평 : 공무원 한국사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탈피하려는 시험의 움직임은 기출을 기반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몇 개의 문제는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난이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문제 자체의 완결성은 높았으며 역사적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지적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은 20문항 전체를 잘 연구하셔서 그 패턴을 다른 주제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나? ('가'책형 기준)

번호	주제	시대	자료 제시	유형
1	시대별 지방 행정 제도	전 시대	×	
2	서희의 외교 담판	고려	○	결과
3	광개토대왕의 왜구 격퇴	고대	○	결과
4	이승만과 김구의 활동	현대	○	인물
5	팔관회와 연등회 구분	고려	○	
6	조선 정조의 업적	조선	○	인물(왕)
7	조선 중종 때 발생한 사건	조선	○	인물(왕)
8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식민정책	일제강점기	○	시기
9	동학농민운동 전개 순서	근대	○	시기
10	임시토사조사국 존속 시기	일제강점기	○	시기
11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	조선	△	
12	신문왕의 업적	고대	○	인물(왕)
13	발해의 고구려 계승 증거	고대	△	
14	문무왕 때 발생한 사건	고대	○	인물(왕)
15	농광회사	근대	○	
16	성리학 학설 및 동향 순서	조선	△	시기
17	일제강점기 생활 모습	일제강점기		
18	1960년대 외국과 맺은 각서	현대	○	시기
19	무신정권기 문인들	고려	○	
20	해외 견문 기록의 순서	조선, 근대		시기

1.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묻는 문제가 6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 16번(성리학 학설 및 동향 순서), 20번(해외 견문 기록의 순서) 문제는 가, 나, 다, 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문제는 이것이 '시기' 문제라는 것을 그 형식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 9번(동학농민운동 전개 순서), 18번(1960년대 외국과 맺은 각서) 문제는 '두 사건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 8번(국가총동원법에 따른 식민정책) 문제는 겉으로 보기엔 국가총동원령의 특징을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제강점기 법령이 반포 순서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10번(임시토지조사국 존속 시기) 문제는 특정 기구의 존속 기구로 시대 구분을 하라는 문제였습니다.

## 2. 인물 문제가 5문항 출제되었습니다.

- 문무왕(14번), 신문왕(12번), 조선 중종(7번), 조선 정조(6번) 문제는 해당 왕대(王代)에 발생한 사실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문화’ 영역에서 많은 부분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 다른 시험에서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던 (왕 이외의) ‘인물’ 문제는 1문항만 출제되었습니다. 4번(이승만과 김구의 활동)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 문제는 ‘역사의 라이벌 문제’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문제에서 제시된 사료도 늘 이승만과 김구를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자료이니 숙지하기 바랍니다.

## 3. 사건의 결과 및 영향을 묻는 문제가 2문항 출제되었습니다.

- 2번(서희의 외교담판) 문제는 ‘~의 담판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형식으로 사건의 결과를 물었습니다.
- 3번(광개토대왕의 왜구 격퇴) 문제는 ‘~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이라는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사건의 결과를 물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왜구 격퇴로 인한 세 가지 결과(금관가야 쇠퇴 시작, 신라에 고구려군 주둔,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내정 간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 ■ 문제 해설

문 1. 시대별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일신라 -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하였다.
- ② 발해 -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 ③ 고려 - 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되었다.
- ④ 조선 - 향리 통제를 위하여 사심관을 파견하였다.

문 1. 정답 ①

통일신라의 지방 행정 조직은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여 중앙 집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군사적 기능보다 행정적 기능을 강화하여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 아래에는 군이나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그 아래의 촌은 토착 세력인 촌주가 지방관의 통제를 받으면서 다스렸다. 신라의 촌주는 신라 중대까지 지방관을 보좌하며 지방의 행정과 군사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신라 하대에는 반(反) 신라적인 성격을 띠며 호족과 결탁하거나 스스로 호적이 되기도 하였다(기본서 135쪽 및 136쪽 참조).

②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는 조선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해 모든 군현에 수령을 임명하였다(기본서 278쪽 참조).

③ ‘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되었다’는 조선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는 전국을 5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주, 군, 현을 두었다. 주, 군, 현 아래의 촌(村)은 행정적인 구획은 아니었다. 조선은 이러한 ‘촌’을 정리하고, 행정적인 구획인 면리제(面里制)를 실시함으로써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다(기본서 292쪽 참조). 고려 시대까지는 면리제가 시행되지 않다가 조선 시대에 면리제가 시행된 것은 자연촌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고려 말 조선 초에 농업 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촌의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이를 행정 구역화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향촌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기본서 348쪽 참조).

④ ‘향리 통제를 위하여 사심관을 파견하였다’는 고려에 대한 설명이다. 사심관(事審官)이란 고려 시대에 부호장(副戶長) 이하의 향리를 임명·통제하기 위해 중앙에서 임명하였던 관리로서, 민심을 수습하고 지방 세력을 회유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려에 항복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고 그 지방의 자치를 감독하게 한데서 비롯된 제도이다. 향리가 지방 자치의 주체(主體)라면, 사심관은 지방 자치의 감독관(監督官)이라고 할 수 있다.

문 2. 다음 (갑)과 (을)의 담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을)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 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 ① 9성 설치
- ② 귀주 대첩
- ③ 강동 6주 경략
- ④ 천리장성 축조

문 2. 정답 ③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는 993년(성종 12년) 10월 거란의 소손녕(蕭遜寧)이 침범할 당시 서희(徐熙, 942~998)가 오히려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를 획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갑)과 (을)의 담판’이란 서희의 외교 담판(993)을 말한다. 이 담판은 거란의 1차 침입 때 있었던 담판으로 (가)는 소손녕이고, (나)는 서희이다. 거란의 소손녕은 거란이 점유한 고구려의 옛 땅을 고려가 침범한 것과 바로 옆에 있는 거란을 멀리하고 바다 건너 송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서희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므로 고구려의 옛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고려가 거란과 친교하기 어려운 것은 중간에 여진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진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회복하여 성보를 쌓고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는 강동 6주의 점유권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략(經略)이라고 한다(기본서 205쪽 참조).

서희가 영문(營門)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들어가 소손녕과 함께 뜰에서 서로 읊(揖)하고 당에 올라 예를 행하고는 동서(東西)로 마주 앉았다. 소손녕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해왔다. 또 (고려는)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바다를 넘어 송(宋)을 섬겼으므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다. 만일 땅을 떼어서 바치고 통교한다면 무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국토의 경계로 말한다면 상국(거란)의 동경(東京)은 전부 우리 지역 안에 있는데 어찌 영토를 침범한 것이라 하는가?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女眞)이 그 사이에 도둑질하여 차지하고는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어 길의 막힘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심하니 조빙의 불통은 여진 때문이다.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 성과 요새를 쌓고 도로를 만들면 어찌 교빙하지 않겠는가? 장군이 만일 신의 말을 천자에게 전하면 어찌 가엾이 여겨 흔쾌히 받아들이지 아겠는가?”라고 하였다. 말하는 기운이 매우 강개하므로 소손녕은 강요할 수 없음을 알고는 드디어 사실을 정리하여 아뢰었다. 거란의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가 이미 화해를 청하였으니 마땅히 군대를 해산할 것이다” 하였다.

- 『고려사』 서희 열전 -

문 3. 밑줄 친 ㉠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영락) 6년 병신(丙申)에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백제왕이) 우리 왕에게 항복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다. … (중략) … ㉠ 1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① 고구려가 신라 내정간섭을 강화하였다.
- ②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 ③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하였다.
- ④ 금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문 3. 정답 ①

‘영락’이라는 연호나 ‘10년’에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는 표현을 볼 때 제시된 자료는 광개토대왕비의 비문 중 일부이다. 광개토대왕은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5만 군사를 보냈으며, 왜구를 추격하여 (아래 사료)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영락 10년(400년)에 5만 군사를 보낸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출제된다(기출문제집 101쪽 참조, 기본서 90쪽·96쪽·109쪽 참조).

- 1)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내물 마립간을 구원하였다.
- 2) 가야 연맹에 포함되어 있던 소국들이 이탈하여 금관가야가 크게 약화되었다(2005 대구시 9급).
- 3)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
- 4) 고구려가 신라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고구려가 신라에 내정간섭을 강화하여), 신라의 김씨 왕위 세습권이 확립되었다.

백잔(百殘)과 신라(新羅)는 예로부터 속민(屬民)으로 (고구려에) 조공(朝貢)하였다. 그런데 왜(倭)가 신묘년(辛卯年, 391)에 건너와 백잔을 공파하고 …… 신라 …… 하여 신민(臣民)으로 삼았다. 이에 6년(396) 병신(丙申)에 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잔국을 토벌하였다. …… 백잔이 의(義)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나와 여러 차례 전투하였다. 왕위(王威)가 격노하여 아리수(阿利水)를 건너니, 창끝을 보내 성을 압박한 것과 같았다. □□귀혈(歸穴) …… 다시 성을 포위하니, 백잔의 군주가 곤경에 직면해 남녀 1천인과 세포(細布) 1000필을 바치며 왕에게 꿇어앉아 스스로 맹세하기를 지금 이후부터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하였다. 태왕께서는 은혜로 어리석은 허물을 용서하고, (항복한) 이후의 정성을 받았다.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백제 군주의 아우 및 대신 10인을 데리고 군사를 돌려 도성으로 돌아왔다. …… 9년(399) 기해(己亥)에 백잔이 맹세를 어기고 왜와 화통(和通)하였다.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신라 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지(城池)를 부수고 노객(奴客)을 민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의하니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태왕의 은혜와 자애로 그 충성을 아끼어 사신을 보내 돌아가 (고구려의) 계책을 알려 주도록 하였다. 10년(40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남거성(南居城)을 통해 신라성(新羅城)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왜가 가득하였다. 관군(官軍)이 바야흐로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 …… 신라성 □성 …… 하였고,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예전에는 신라 매금(寐錦)이 몸소 고구려에 와 일을 논의한 적이 없었는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 …… 매금이 …… 하여 조공하였다.

「광개토왕 비문」

문 4. (가)와 (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나) 나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① (가) -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 ② (가) - 좌우 합작 7원칙을 지지하였다.
- ③ (나) - 탁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④ (나) -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의장을 역임하였다.

문 4. 정답 ③

2013년 기상직 9급, 2014년 경찰, 2015년 경찰, 2011년 국가직 7급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역사의 라이벌'인 이승만과 김구를 묶어서 출제하였다. (가)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 6)이고, (나)는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읊고함'(1948. 2)이다(기본서 599쪽 및 601쪽 참조).

- ① 이승만은 5·10 총선거에 참여하였다. 선거 결과 무소속 출신이 85석으로 가장 많이 당선되었고, 이승만을 적극 지지하는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가 55석, 한국 민주당이 29석을 차지하였다.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는 문장은 이승만보다는 김구·김규식 등의 남북협상파에 써야 한다(기본서 602쪽 참조).
- ② 여운형·김규식 등의 중도파가 주도하여 좌우합작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김구 중심의 한국 독립당은 좌우 합작 7원칙과 과도 입법 의원 설치에 대해 찬성하였지만, 한민당과 이승만은 과도 입법 의원 설치에만 찬성하고 좌우 합작 7원칙에는 거리감을 보였다(기본서 599쪽 참조).
- ③ 1945년 12월, 미국·영국·소련 3국 외무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외무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에 1945년 12월 28일 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은 각계 대표자들과 회합하였고, 다음 날 '신탁통치(탁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였다(기본서 599쪽 참조).
- ④ 1946년 12월에 개원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의장을 역임한 인물은 김규식이다. 작년(2017년) 제2회 지방직 공무원 시험 7급 문제에서도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의장에 대해 물었다.

문 5.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전에 성종이 (가)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正道)에 어긋나는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중략)…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 ① 국제 교류의 장이었다.
- ② 정월 보름에 개최되었다.
- ③ 토속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④ 훈요 10조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문 5. 정답 ②

고려 성종은 연등회를 '축소'하고 팔관회를 '폐지'하여 국가적인 불교행사를 억제하였으나, 약 30년 후 현종 대에 이르러 연등회와 팔관회를 다시 성대하게 거행하였다(기본서 182쪽 및 183쪽 참조). 팔관회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성종 때 폐지되었다가, 현종 때 최항의 건의에 따라 다시 부활되었다(665쪽 참조).

① 팔관회는 국제 교류의 장이었다. 팔관회 행사 기간 중에는 향등을 설치하고, 노래와 춤을 벌이며 밤낮으로 즐겼다. 특히 11월의 팔관회는 외국상인들과의 무역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송나라 상인과 동번(東蕃)·서번(西蕃)·탐라에서는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다(기본서 665쪽 참조).

③ 팔관회는 불교의 팔관재계(八關齋戒)와 도교·민간신앙이 복합된 불교 행사였다. 그러므로 토속 신에게도 제사를 지냈다.

④ 고려의 팔관회는 고려 건국의 해인 918년부터 시작되었다. 훈요 10조(943)에서 연등회와 함께 팔관회 시행이 강조되었다. 다음 자료는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 시행을 강조한 부분이다(기본서 665쪽 참조).

여섯째, 짐의 지극한 소원은 연등회(燃燈會)나 팔관회(八關會)에 있으니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일이고[燃燈所以事佛] 팔관회는 하늘의 신령 및 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일이다[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② '정월 보름에 개최'된 행사는 연등회이다. 팔관회는 서경에서는 10월, 개경에서는 11월에 개최되었다(기본서 665쪽 참조).

문 6.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은 하나이나 냇물의 갈래는 만 개가 된다. ... (중략) ...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이다.

- ① 『해동농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② 갑인예송에서 왕권을 강조하며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 ③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였다.
- ④ 민간의 광산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문 6. 정답 ①

제시된 자료는 스스로를 '만천명월주인옹'이라고 부른 '정조'가 쓴 글로, 제목은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이다. 이 글은 정조가 1798년에 군주(君主)와 민(民)의 관계에 대하여 쓴 것으로 정조의 개인문집인 「홍재전서」에 수록되어 있다(기본서 316쪽 참조).

- ① 『해동농서(海東農書)』는 정조 때(1798년), 서호수가 편찬하였다(기본서 393쪽 참조).
- ② 갑인예송에서 왕권을 강조하며 기년복(1년복)을 주장하였던 인물은 남인에 속하는 허적 등이다(기본서 309쪽 참조).
- ③ '숙종'은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기 위한 사우를 세우고 현충사(顯忠祠)를 사액하였으며, 이순신에게는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1707). 또한 거란군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해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였다(1709).
- ④ 설점수세제(設店收稅制)란 당시 수요가 많았던 연(鉛)이나 은(銀) 생산지에 '설점(設店)'한

뒤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말한다. ‘효종’은 민간의 광산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처음 실시하였다(1651).

문 7. 밑줄 친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 데에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 (중략) … 『이륜행실(二倫行實)』로 말하면 신이 전에 승지가 되었을 때에 간행할 것을 청했습니다. 삼강이 중한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모두 알고 있으나, 봉우·형제의 이륜에 이르러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 ②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저술하였다.
- ③ 『국조오례의』가 편찬되고 『동국여지승람』이 만들어졌다.
- ④ 문화와 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 집현전을 창설하였다.

문 7. 정답 ①

1518년(중종 13년) 조신은 왕명에 따라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간행하였다(기본서 376쪽 참조). 제시된 자료에서 ‘이륜행실(二倫行實)’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봉우·형제의 이륜’이라고 표현하여 그 이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였다. 『이륜행실도』는 2016년 국회직 9급, 2013년 경찰 시험 및 2011년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성종 때 편찬된 서적’의 오답으로 출제되었고, 같은 해 기상직 9급에서는 ‘세종 때 간행된 서적’의 오답으로 출제되었다. 『이륜행실도』는 늘 이렇게 ‘간행 시기’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륜행실도』의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간행 시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료에서 ‘삼강행실도’와 구분하는 것이다.

① 중종 말기(1543년)에 주세붕이 안향을 기리기 위해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기본서 351쪽 참조). 다음 시험을 위해서 기본서에 정리된 ‘중종’ 대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꼭 정리하기 바란다(기본서 300쪽 참조).

- 중종 반정(1506)
- 3포 왜란(1510)
- 임신약조(1512)
- 비변사 설치(1517)
- 이륜행실도(1518)
- 조광조의 급진개혁
- 현량과 실시(1519)
- 기묘사화(1519)
- 백운동 서원(1543)

② 김시습(1435~1493)은 그의 나이 31세에서 37세까지 경주 금오산에 머물면서 『금오신화』를 저술하였다(추정). 아마도 예종 때이거나 성종 때일 것이나,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금오신화』는 기본서에 있는 그대로 ‘조선 초기’로 이해하면 된다(기본서 394쪽 참조).

③ ‘오례(五禮)’에 관한 책은 세종이 편찬하라고 지시하였고, 세조 때 완성하려고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성종 때가 되어서야 신숙주·정척 등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완성하였다(1474). 성종은 노사신·양성지·강희맹·서거정 등에게 명(明)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와 조

선에서 제작했던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참고하여 새로운 지리서를 편찬하도록 지시했다. 이 작업의 결과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라는 관찬 지리서가 완성되었다(1481). (기본서 273쪽 및 375쪽 참조)

④ 세종은 문화와 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 집현전을 창설하였다. 집현전이라는 명칭은 고려 때부터 써 왔으나, 집현전을 확대하여 실제적인 연구 기관으로 개편한 것이 세종 때이므로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되었다(창설되었다).’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기본서 269쪽 참조).

**문 8. 다음의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 (중략) … 등을 명할 수 있다.

- ① 물자통제령을 공포하여 배급제를 확대하였다.
- ② 육군특별지원병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을 선발하였다.
- ③ 금속류회수령을 제정하여 주요 군수 물자를 공출하였다.
- ④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강제적인 노무 동원을 실시하였다.

**문 8.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시행되었던 「국가총동원법」(1938)이다(기본서 560쪽 참조).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 전쟁을 도발하고 국가를 전시 총동원 체제로 바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국가총동원법」이었다. 이 법은 칙령 제316호로, 같은 날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 사할린에서도 시행되었다.

①, ③ 「국가총동원법」은 구체적인 통제 방법은 명시되지 않아 그 후 「공장·사업장관리령」(1938), 「국민 징용령」(1939)을 비롯한 「가격 통제령」(1939), 「식량 관리령」, 「농지 관리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1941), 「신문지 등 게재 제한령」(1941), 「물자 통제령」(1941), 「금속 회수령」(1941) 등 각종 후속 법령이 잇따르며 계속 필요에 따라 인원과 물자를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내는 근거가 되었다.

④ 「국가총동원법」의 제4조는 “한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帝國臣民)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여 인력 수탈, 즉 조선인 강제 동원의 근거가 되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공포된 「국민 징용령」이 1939년 7월에 공포되었다.

② 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인 6월, 조선군사령부는 일본 육군의 지시를 받아 조선인에 대한 병력 동원 계획을 수립했다. 지원병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조선에도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과도적인 형태로 실시’되었다. 이는 한국인을 군대에 수용하여 일본 정신을 철저히 함양시켜 제대 후에는 황국 신민화(皇國臣民化)를 이끌어갈 인물로서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한국인의 일본어 보급률이 저조하고, 한국인에게 군사 기술과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위험을 느꼈다. 그렇지만 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전장이 중국 전체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병력 보급이 절실히 요청되자, 우선 소규모 차원에서 지원병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8년 2월 22일 「육군 특별 지원병령」이 공포되고 4월부터 실시

되었다.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육군 특별 지원병령」은 1938년 4월이고,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5월이므로, 「육군 특별 지원병령」은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식민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지원병 제도는 중일 전쟁 후 ‘강제성’이 강화된 국가총동원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도기적인 정책이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조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문 9. (가)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은?**

방금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에 따르면 “죄인들이 대다수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 『승정원일기』 -

↓

(가)

↓

전봉준은 금구 원평에 앉아 (전라) 우도에 호령하였으며, 김개남은 남원성에 앉아 좌도를 통솔하였다. - 『갑오약력』 -

- ① 논산에서 남·북접의 동학군이 집결하였다.
- ②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 ③ 동학교도가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 ④ 백산에서 전봉준이 보국안민을 위해 꺾기하라는 통문을 보냈다.

**문 9. 정답 ④**

이 문제는 안핵사 이용태의 악행(1894년 2월)과 집강소 설치(1894년 5월) 사이에 무장·백산 봉기(1894년 3월) 발생이 있었음을 묻는 문제이다.

(첫 번째 사료) 만석보에 대한 과중한 수세(水稅) 등 고부 군수 조병갑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항거하여 전봉준을 지도자로 하여 농민들이 봉기하였다(1894. 1. 고부 봉기). 이에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박원명을 고부 군수로 내려보냈고, 농민들은 신임 군수의 유효책으로 인해 사태가 진정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임명되어 오히려 동학교도를 탄압하고 악행을 저질러 동학교도를 격분하게 하였다(1894. 2. 이용태의 악행). (기본서 460쪽 참조)

(가)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군은 무장에서 기포(起包)하고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4천 여 명의 동학 농민군이 편성되었고, 대장은 전봉준이 맡았다. 이어 3월 25일 백산에 집결하여 지휘부를 개편하여 대장에 전봉준, 총관령에 손화중·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오시영, 영솔장에 최경선을 추대하였다. 농민군 지도부는 백산에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를 설치하고 대장기에 무장기포 때의 동도대장 이외에 '보국안민(保國安民)'이란 네 글자를 크게 써 넣었으며, 격문을 공포해 전라도를 비롯한 전국에 띄워 백성들의 결기를 촉구했다.

(두 번째 사료) 1894년 5월 7일에 전주 화약이 맺어진 이후,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53개 고을에 농민의 자치적 개혁 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안을 실시하였다(기본서 460쪽 참조). 문제에서 제시된 『갑오약력』의 기록은 집강소의 지역별 지휘권을 묘사한 것이다. 전봉준이 앉아 있다는 '금구 원평'과, 김개남이 앉아 있다는 '남원성'은 모두 집강소가 설치된 '전라도'에 있는 지역이다. 농민군 집강소의 질서(지휘 체제)는, "이 때 호남적(湖南賊)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김기범 등은 우도를 경영하였고 전봉준은 좌도를 경영하였다(『오하기문(梧下記聞)』의 기록)"라거나, "전봉준은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구원평에 둔거하여 전라우도를 통솔하였고, 김개남은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남원성에 둔거하여 전라좌도를 통솔하였으며, 그 이외 김덕명·손화중·최경선 등도 각기 한 지역에 둔거하였다(『갑오약력(甲午略歷)』의 기록)"라고 하였듯이, 전봉준·김개남·김덕명·손화중·최경선 등은 각기 한 지역을 장악·지배하고 있었다.

문 10. (가) 기구가 존속한 시기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 ① 조선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 ②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 ③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구매되는 담배
- ④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 무관 학교 출신 청년

문 10. 정답 ②

(가)에 들어갈 기구는 '임시토지조사국'이다(기본서 518쪽 참조). 일본은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통감부가 설치되었을 때부터 조선의 토지 제도 재편을 구상해 왔다. 이 작업은 1910년 3월 통감부에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강제 병합 후에는 토지 조사국 사무를 조선 총독부로 이관하여 조선 총독부 안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전담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1918년 이완용의 토지조사 종료식 축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으므로, '임시토지조사국'의 존속 시기는 '1910년~1918년'으로 보면 된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査定)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 ② 이광수가 소설 '무정'을 발표한 때는 1917년이다(기본서 32쪽 및 581쪽 참조).
- ③ 강제 병합 이후 1910년에 공포된 회사령에 의해 연초업 부문에서 조선인 자본가들은 배제되어 갔고, 일본인 자본가가 연초 제조업을 장악해 나갔다. 또한 1910년대에 연초세를 조세 항목으로 설정하고 연초세의 세율도 올려 갔다. 그러다가 조선총독부는 1921년 7월에는 '연초 전매제'까지 실시하여 연초 재배업·제조업·판매업의 모든 부문을 통제함으로써 조선의 경작 농민·제조업자·판매업자를 몰락시켰고, 소비자에게 비싼 전매 연초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수탈을 행하여 조선총독부의 재정 세입을 늘려 나갔다.
- ④ 의열단과 신흥무관학교는 모두 1919년에 창설되었으므로, 1918년 이후의 사건이다.

**문 11. 밑줄 친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02년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 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서 제작하였다고 한다.

- ①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묘사하였다.
- ②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었다.
- ③ 이 지도의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 ④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문 11. 정답 ④**

1402년(태종 때) 제작된 세계 지도이며, 권근이 발문을 썼고, 중국의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들여와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하여 편집한 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이다. 이 지도는 김사형, 이무, 이회 등이 제작한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다. 현재 그 원본은 없지만 모사본이 일본 류코쿠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 ①, ②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중앙에는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그려져 있다. 아프리카·유럽은 작게 그려져 있고,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때이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기본서 371~372쪽 참조).
- ③ 이슬람 지도학은 동서 문화 교류에 의해 중국 사회로 전파되었고, 중국에서는 이택민과 같은 학자에 의해 중국식 지도로 편집·제작되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지도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기반이 되었던 '성교광피도'이다. 따라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수록된 유럽과 아프리카의 모습은 중국을 거쳐 들어온 이슬람 지도학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도의 아프리카 부분에 그려진 나일강의 모습과 지명들은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에 대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 ④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흡사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화에 기여'했다는 표현은 쓸 수 없다. '지도의 과학화'는 조선 후기에 어울리는 말이며(기본서 371쪽 참조), 최초의 백리척 지도는 영조

때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東國地圖)이므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백리척'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없다.

문 12.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   |
|---|
| <p>○ 왕 원년 : 소판 김흠돌, 파진찬 흥원, 대아찬 진공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p> <p>○ 왕 9년 :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 실현하지 못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 『삼국사기』 -</p> |
|---|

- ①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였다.
- ②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 ③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 ④ 관료에게 지급하는 녹읍을 부활하였다.

문 12. 정답 ③

신문왕 원년인 681년에 김흠돌이 흥원, 진공 등과 함께 반란을 꾀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689년에 신문왕은 달구벌(대구)로 수도를 옮기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기본서 117쪽 참조). 신문왕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 ① '소지마립간'은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였다.
- ② '효소왕'은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 ④ '경덕왕'은 관료에게 지급하는 녹읍을 부활하였다.

문 13. 다음은 발해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다. 한국사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로 적절한 것은?

- |  |
|--|
| <p>○ 중국 : 소수 민족 지역의 분리 독립 의식을 약화시키려고, 국가라기보다는 당 왕조에 예속된 지방 민족 정권 차원에서 본다.</p> <p>○ 러시아 : 중국 문화보다는 중앙 아시아나 남부 시베리아의 영향을 강조하여 러시아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한다.</p> |
|--|

- ① 신라와의 교통로
- ② 상경성 출토 온돌 장치
- ③ 유학 교육 기관인 주자감
- ④ 3성 6부의 중앙 행정 조직

문 13. 정답 ②

중국은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보는데, 이것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의 핵심적인 내용이다(기본서 758쪽 참조). 심지어 러시아까지 발해를 러시아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한다면, 한국사의 입장에서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를 반박하여야 한다.

- ② 상경성에서 출토된 궁전의 온돌 장치는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다는 증거이다(기

본서 130쪽 및 161쪽 참조).

- ① 신라와의 교통로는 '신라와의 친선 관계'의 증거는 될 수 있으나, 발해의 고구려 계승과는 거리가 멀다.
- ③ 발해의 중앙 최고 교육기관인 주자감(胄子監)은 그 명칭의 유사성을 볼 때 당의 국자감(國子監)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단정 짓기 어렵다. 어찌되었건 주자감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 ④ 3성 6부의 중앙 행정 조직은 당의 영향을 받은 체계이다.

**문 14. 신라 문무왕의 유언이다. 밑줄 친 ㉠ ~ ㉣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인은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하여야 하는 때를 만나서 ㉠ 서쪽을 정벌하고 ㉡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켰고, ㉢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멀고 가까운 곳을 모두 안정시켰다.

- 『삼국사기』 -

- ① ㉠ - 태자로서 참전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 ② ㉡ -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 ③ ㉢ - 백제 부흥 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격하였다.
- ④ ㉣ -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들였다.

**문 14.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681년(문무왕 21년)에 문무왕(661~681)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왕이 남긴 조서는 이러하다. “과인이 어지러운 시운과 전쟁의 때를 만나 서쪽을 치고 북쪽을 정벌하여 강토를 평정했으며, 반역자를 토벌하고 붙잡는 이를 불러들여 마침내 멀고 가까운 곳들이 평안해졌다. 위로는 조종의 끼치신 사랑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는 부자의 오랜 원수를 갚았도다. 산 이나 죽은 이 모두에게 두루 상을 추증하고 안팎에 고르게 관작을 나누어 주었으며, 병장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고 백성들을 어질고 오래 살도록 이끌었다. …(하략)…”

『삼국사기』

- ① 문무왕의 입장에서 '서쪽을 정벌'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백제를 공격한 사건일 것이다. 문무왕(법민)은 태자로서 참전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660).

(무열왕 7년 6월) 21일에 왕이 태자(太子) 법민(法敏)을 보내 병선(兵船)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도(德物島)에서 소정방을 맞이하였다. 소정방이 법민에게 말하기를, “나는 7월 10일에 백제의 남쪽에 이르러 대왕의 군대와 만나서 의자(義慈)의 도성(都城)을 깨뜨리고자 한다.” 고 하였다. 법민이 말하기를, “대왕은 지금 대군(大軍)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장군(大將軍)께서 왔다는 것을 들으시면 필시 이부자리에서 새벽 진지를 잡숫고 오실 것입니다.” 하였다. 소정방이 기뻐하며 법민을 돌려보내 신라의 병마(兵馬)를 징발케 하였다. 법민이 돌아와서 소정방의 군대 형세가 매우 성대하다고 말하자 왕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② 문무왕의 입장에서 ‘북쪽을 토벌’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고구려를 공격한 사건일 것이다. 문무왕은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668).

(문무왕 8년) 9월 21일에 당나라 군사와 합세해 평양을 에워쌌다. 고구려 왕은 먼저 천남산(泉男産) 등을 보내 영공에게 가서 항복을 요청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영공이 왕 보장과 왕자 복남, 덕남 및 대신 등 20여 만 명을 데리고 당으로 돌아갔다. 이때 각간 김인문과 대아찬 조주가 영공을 따라 돌아가고 인태, 의복, 수세, 천광, 흥원도 일행을 따라갔다. 처음에 당나라 군사가 고구려를 평정할 때 왕은 한성을 떠나 평양을 목표로 하여 힐차양에서 머물다가, 당의 여러 장수들이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한성으로 되돌아왔다.

『삼국사기』

③ 문무왕의 입장에서 백제 및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였다는 것은 백제의 부흥 운동을 진압하였다는 의미일 것이고,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였다’는 것은 고구려의 부흥 운동을 지원하였다는 의미일 것이다(기본서 113쪽 참조).

(문무왕 3년) 5월에 영묘사 문에 벼락이 쳤다. 백제의 옛 장수 복신(福信)과 승려 도침이 전왕의 아들 부여풍을 맞이해 왕으로 세우고, 유진량장 유인원을 웅진성에서 포위하였다. 당 황제가 조서를 내려 유인권을 검교대방주자사로 삼아 전도독 왕문도의 병력을 통솔해 우리 군사와 함께 백제 진영으로 향하게 하였다. …(중략)… 왕이 김유신 등 28명의 장군들을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합세해 두릉윤성과 주류성 등 여러 성을 쳐서 모두 함락시켰다.

『삼국사기』

④ 백제가 망한 후 왕족 복신과 승려 도침이 주류성에 웅거하여 왜에 가 있는 왕자 풍을 맞이하여 왕으로 삼고 왜국과 고구려의 지원을 얻어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지수신 또한 임존성[지금 대흥]에 웅거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남북이 호응하여 여러 번 웅진에 주둔하고 있는 당나라 장군 유인원을 습격하여 그 세력이 매우 강하였다. 그러나 주류성 안에서 지도자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풍왕이 복신을 죽인 까닭에 나당 연합군에게 패하여 풍왕과 지수신은 고구려로 달아나고 부흥 운동은 4년 만에 실패하였다. 지수신이 문무왕에게 투항하였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지만,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를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협조하는 무리’에 적합한 사건은 보덕국의 건국일 것이다. 674년 문무왕은 안승을 보덕국왕(報德國王)으로 책봉하여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였다.

문 15.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회사의 고금(股金, 주권)은 액면 50원씩이고, 총 1천만 원을 발행하고, 주당 불입금은 5년간 총 10회 5원씩 나눠서 낸다.

○ 이 회사는 국내 진황지 개간, 관개 사무와 산림천택(山林川澤), 식양채벌(殖養採伐) 등의 사무 이외에 금·은·동·철·석유 등의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한다.

- ① 종로의 백목전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 회사였다.
- ②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하려는 국책 회사였다.
- ③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특허 회사였다.
- ④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척식 회사였다.

문 15. 정답 ③

진황지(陳荒地)란 버려 두어서 거칠어진 땅으로 진전(陳田)과 황무지(荒蕪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진황지 개간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이 회사는 '농광회사(1904)'이다(기본서 484쪽 및 504쪽 참조).

일본이 대한시설강령(1904)에 따라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보안회와 농광회사가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1904년 6월 흥공섭이 구체적인 회사 설립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모든 진황지(陳荒地)를 인민들에게 특허하여 개척하게 하면, 인민에게는 이롭고 외국인들의 청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흥공섭의 제안은 고조되는 국민의 반대여론과 계속되는 일본의 강요 사이에서 곤경에 처한 한국 정부에게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다. 이러한 때에 중추원부위원장 이도재·장례원경 김종한 그리고 안필중·정문원·홍중섭 등이 주동이 되어 황무지 개척 사업을 목적으로 농광회사(農曠會社, 농광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내부와 농상공부에 특허를 청원하였다. 회사설립 자본금은 액면 50원의 고(股) 20만 주(株)로 총 1천만 원이었고, 사장에는 이도재가 선임되었다. 회사규칙은 18조로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은 회사가 황무지개척 사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관심이 크고 또 실지 경영하던 금(金)·은(銀)·동(銅)·철(鐵) 등 각종 광업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청일 전쟁 이후 일본산 면포가 조선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의 백목전(白木廬) 상인들은 직접 면포를 생산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민병석을 사장으로 이근호를 부사장으로 하여 세워진 회사가 '종로직조사'이다(1900).

②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하려는 일본의 국책 회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이다(1908). 1908년 3월 일본 의회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일반회사법과 별도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법'을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에 강요하여 8월 한일 양국이 동시에 법안을 공포하였다. 한일합작회사로 창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립위원 중의 다수는 일본인이었으며, 한국측의 참가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 1910년 조선이 국권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막대한 토지를 사들이며 대륙 침략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④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회사는 황국중앙총상회(1898)이다. 황국중앙총상회는 "외국 상인은 발전하고 우리나라 상인의 생업은 쇠락하여 심지어 점포 자리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 버리는 지경에 이른 것"에 대응하여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였다. '척식 회사'라는 말은 황국중앙총상회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문 16.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ㄱ.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여 경장(更張)을 주장하였다.<br>ㄴ.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太虛)설'을 제기하였다.<br>ㄷ. 정지운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되었다.<br>ㄹ. 향약 보급 운동과 함께 일상에서의 실천 윤리가 담긴 『소학』을 중시하였다. |
|---|

- ① ㄴ → ㄱ → ㄹ → ㄷ
- ② ㄴ → ㄹ → ㄱ → ㄷ
- ③ ㄹ → ㄴ → ㄷ → ㄱ
- ④ ㄹ → ㄷ → ㄴ → ㄱ

문 16. 정답 ③

이 문제는 ‘중종 전반기의 조광조 등 기묘사림’ → ‘중종 말과 명종 초의 서경덕과 이언적의 연구’ → ‘명종 대의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 → ‘선조 대의 이이의 경장 사상’의 순서를 묻고 있다.

ㄹ. 향약 보급 운동과 함께 일상에서의 실천 윤리가 담긴 『소학』을 중시하였다.

조선 중종 때의 조광조(1482~1519), 김안국 등의 ‘기묘사림’은 인(仁)과 덕(德)에 의한 왕도 정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현인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현철군주론(賢哲君主論)을 주장하고 그를 위해 경연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묘사림은 영남사림과 마찬가지로 『소학』을 학문의 시작으로 여기며 매우 중시하였다. 영남사림들이 이 책을 개인적인 실천 차원에서 중시하였다면 기묘사림들은 사회적인 차원까지 확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급하려고 노력하였다. 동시에 『소학』에 실려 있는 여씨향약(呂氏鄉約)을 보급하는 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였다.

ㄴ.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太虛)설’을 제기하였다.

기묘사림의 도전과 개혁이 기묘사화로 인하여 실패한 이후, 훈구파의 계속적인 탄압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서원 건립을 추진해 나갔다. 그 결과 성리학적 세계관과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은 서경덕(1489~1546)과 이언적(1491~1553)이다. 서경덕은 조선 성리학에서 기일원론(氣一元論)의 선구적인 위치를, 이언적은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경덕은 우주가 끊임없이 생성·변화·소멸하는 현상세계인 후천(後天)과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본체인 선천(先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 모두 기(氣)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죽기 전에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서 몇 편의 글을 남겼다. 연보에 의하면 <원이기(原理氣)>, <이기설(理氣說)>, <태허설(太虛說)>, <귀신사생론(鬼神死生論)> 등 네 편의 글이 이때 지어졌다. 이 글들은 서경덕 이기론의 핵심을 담고 있다.

ㄷ. 정지운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되었다.

서경덕과 이언적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바로 다음 시기에 오면 이기심성론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황과 이이를 비롯하여 조식·정지운·이항·김인후·노수신·기대승·성혼 등이 그 이론적 심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벌어진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은 조선 학자들의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그들이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명종 14년(1559)부터 21년까지 8년 동안 지속된 이 논쟁의 발단은, 정지운이 권근의 『입학도설』과 권채의 『작성도』 등의 영향을 받아 작성한 『천명도(天命圖)』를 이황이 수정하면서였다. 즉 4단은 이(理)에서 발한 것이고 7정은 기에서 발한 것이다(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고 정지운이 써놓은 것을 이황은 4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7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라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정지운도 이황의 견해를 받아들여 새로 『천명신도(天命新圖)』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기대승이 자신의 견해를 담은 서신을 이황에게 보냄으로써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기대승은, 4단은 7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양자를 구분해서 보는 것은 잘못이며 마찬가지로 이와 기도 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4단과 7정을 이와 기에 분속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7.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여 경장(更張)을 주장하였다.

이황의 사상은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고 근본적, 이상주의적 성격을 지녔는데, 이것은 16세기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과제를 대신 수행한 것이 이이의 사상이었다. 주자의 학설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이기의 분리나 이(理)의 운동성을 강조했던 이황과는 달리 이이는 경장(更張)을 주장하며 당시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였다. 이황이 기대승과의 이기심성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시켜 갔듯이 이이도 성혼과의 이기심성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시켜 갔다.

선조 5년(1572)부터 6년간 계속된 이 논쟁에서 성혼이 이황의 이기호발설에 동조하여 이발(理發)을 인정하고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을 구분하여 각각 4단과 7정에 분속시키려고 한 데 반하여, 이이는 4단과 7정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7정 가운데 선한 부분이 4단이며 이 4단·7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다.

문 17.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 외곽의 토막촌에는 빈민이 살았다.
- ② 변화가에서 최신 유행의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활동하였다.
- ③ 몸빼를 입은 여성들이 근로보국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 ④ 상류층이 한식 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영단 주택에 모여 살았다.

문 17. 정답 ④

- ① 일제강점기에 식민주의적 자본주의가 유입되면서 한쪽에서는 근대식 주택이 지어지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자본주의 유입의 어두운 그늘 아래에서 도시 빈민촌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토막촌(土幕村)이라고 불렀다. 서울 변두리에는 빈민이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 토막살이를 하는 사람은 1937년 서울(경성부) 총인구 70만여 명 중에서 15,000여 명에 달하였다. 2015년 사회 복지직 시험에서 일제강점기 생활 모습의 대표로 '토막촌'이 출제된 적이 있다(기출문제집 710쪽 참조).
- ② 모던걸(Modern Girl)과 모던보이(Modern Boy)는 1920년대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자본주의 문화와 생활 양식이 확산되고, 서울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2017년 서울시 7급에서 『별건곤』 잡지에 실린 모던걸, 모던보이의 내용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사회 모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다(기출문제집 737쪽 참조).
- ③ 조선총독부는 옷감을 절약하고 노동력을 쉽게 동원하기 위하여 여성들에게 '몸빼'라는 이름의 바지를 입게 하였다. 몸빼를 입은 여성들은 근로보국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2012년 지방직 7급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다(기출문제집 709쪽 참조).
- ④ 일제강점기에는 도시에 사람이 몰리면서 이전에 볼 수 없던 주택이 나타났다. 1920년대 이후에 상류층의 문화 주택, 중류층의 개량 한옥, '중·하류층'의 영단 주택이 그것이다. 1920년대에 지어진 개량 한옥은 사랑채가 생략되고, 대청마루에 유리문을 달고 문간에 중문이 달리고 문간방이 생기며 장식적 요소들이 가미된 도시형의 상품 주택이었다. 1930년대에 나타난 문화 주택은 2층 양옥으로, 전에 없던 복도와 응접실, 침실, 아이들 방 등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 생겨났다. 영단(營團) 주택은 1940년대 들어 도시민, 특히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려고 지은 일

종의 국민 연립 주택이었다. 영단주택은 1941년 조선주택영단령이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에 의해 건설된 주택이다.

문 18.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해외경제협력기금)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나)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중략)…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 ① 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 ②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건설되었다.
- ③ 국가 기간 산업인 울산 정유 공장이 가동되었다.
- ④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에 비료 공장을 설립하였다.

문 18. 정답 ③

(가)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하여 한·일 회담을 추진하였다. 한일 양국은 1961년 10월 20일 제6차 회담을 열었으나, 청구권 액수·평화선 문제·독도 문제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1962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일본에 파견하여 비밀 회담을 가지게 하였다. 그 결과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金大平-]」를 통하여 한일 간의 가장 큰 쟁점이던 청구권 문제가 타결되고, 1964년 4월 어업 협정 문제 등도 타결되었다. 이렇게 '1961년 각서'가 교환되어 체결된 한·일 회담은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논란이 되어, 6·3 사태로 이어졌으나, 1965년 국회를 통과하였다. 제시된 자료는 1961년에 한·일 간에 교환된 각서이다.

(나) 제시된 자료는 1966년 3월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 월남 증파의 선행조건에 대한 양해 사항을 당시 주한 미국대사 W. G. 브라운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이다. 일명 「브라운 각서」라고 한다. 「브라운 각서」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추가 파병을 하면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파병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다.

③ 우리 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국가의 주요 목표를 경제 발전에 두었다. 1960년대에는 정유 공장을 비롯하여 발전소, 시멘트, 비료, 철강 공장 등과 도로, 철도, 통신 시설 등을 건설하여 경제 발전의 기틀을 이루게 하였다. 울산정유공장은 1963년 3월 12일 착공하였고, 1964년 5월 7일 준공되어 가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가) 1961년과 (나) 1966년 사이에 발생한 사실에 해당한다.

① 경부 고속 국도는 1968년 2월 1일에 기공식을 갖고, 2년 2개월만인 1970년 7월 7일 준공되어 개토되었다(기본서 636쪽 참조, 기출문제집 815쪽 참조).

② 수출자유지역은 박정희 정부가 1970년 1월 수출 증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설치한 구역이다. 1970년에는 마산을, 1973년에는 이리(현재의 익산)을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015년 경찰, 2012년 기상직 9급에서 출제되었다(기출문제집 821~822쪽 참조, 기본서 773쪽 참조).

④ 한국 경제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면서 공업화를 지향해 나갔다. 그 중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분야는 섬유 공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활발하였던 것이 화학 공업이었다. 충주 비료, 나주 비료 등 대규모의 공장이 건설되고, 제지, 고무, 유리 공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

를 거두었다. 특히 1961년 완성된 충주 비료 공장은 식량 증산을 위한 비료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 19.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이다.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의 작품은?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앞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 ① 삼국사기
- ② 동명왕편
- ③ 제왕운기
- ④ 삼국유사

문 19. 정답 ②

진화(陳澣)가 지은 이 시는 2001년 국비유학생, 2006년 국비유학생 시험에 출제되었다(기출문제집 215쪽 참조). 이 시에서 ‘이미 기운 송나라’는 남송(南宋)을 말하며, ‘북쪽 오랑캐’는 금(金)을 말한다. 1234년에 금나라가 몽골에 멸망하고, 1279년에 남쪽의 송나라도 멸망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는 금나라가 멸망하기 전인 1200~1230년 경에 쓰인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 행의 ‘하늘의 동쪽’이란 고려를 말한다. 이 시는 ‘고려가 새로운 문명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대감과 자부심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몽골의 압제는 시작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진화(1180?~?)와 교류한 동시대의 인물은 이규보(1168~1241)이다. 2006년 국비유학생 문제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고려 무신 집권기에 이규보와 함께 학자로서의 명성을 날리던 진화가 지은 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답은 이규보가 지은 대표적인 역사서 『동명왕편』이다. 이 문제는 진화와 이규보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풀 수도 있지만, 시(詩) 자체를 해석해서 ‘남송’과 ‘금’을 발견하면 이것이 ‘무신집권기’ 문제인 것을 알 수도 있는 문제이다.

- 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의 역사서이다.
- ③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월간섭기의 역사서이다.
- ④ 일연의 『삼국유사』는 월간섭기의 역사서이다.

문 20. 다음 해외 견문 기록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표해록』  
ㄴ. 『열하일기』  
ㄷ. 『서유견문』  
ㄹ. 『해동제국기』

- ① ㄱ → ㄴ → ㄹ → ㄷ
- ② ㄱ → ㄹ → ㄷ → ㄴ
- ③ ㄹ → ㄱ → ㄴ → ㄷ
- ④ ㄹ → ㄷ → ㄱ → ㄴ

문 20. 정답 ㉓

ㄹ. 『해동제국기』는 1443년(세종 25년) 신숙주가 일본 사행(使行)을 다녀온 후, 1471년(성종 2년) 왕명을 받아 일본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다.

ㄱ. 『표해록(漂海錄)』이란 말 그대로 해양에서 표류하였던 기록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 당도하여 모험적인 여행을 했던 것을 다룬 견문록으로, 1487년(성종 18년) 최부가 지은 표해록이 대표적이지만, 17세기~18세기에 쓰인 경섬, 문순득, 장한철 등의 표해록 등도 있으므로, 문제가 어느 표해록을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ㄴ. 『열하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청나라에 다녀온 후 기록한 중국 기행문이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조선 후기의 수많은 연행록 중에 가장 뛰어난 저술로 유명하다. 1780년(정조 4년) 박지원은 청나라 황제인 건륭제(乾隆帝)의 칠순 잔치를 기념하기 위한 외교 사절단과 함께 청나라에 방문하였다. 사절단의 원래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으나 건륭제가 갑작스럽게 이궁(離宮)이 있는 열하(熱河)로 초청하면서 박지원도 그 이전에 조선 사절단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열하까지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을 적은 기행문이다.

ㄷ.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1889년에 타고하고, 1895년에 출판한 기행문 형식의 국정 개혁서이다. 유길준은 서양의 근대 문명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이 책을 국한문 혼용체로 집필하였다.